

금강반 학습 계획

2019년 10월 5일
담임: 류민희

시간	수업내용	교재 및 장소
1교시 (9:30~10:10)	단어퀴즈 1 맞춤법 연습	학습 계획 P.1~2
2교시 (10:15~11:00)	고급과정 수준별 글쓰기수업	각 반 교실
(11:00~11:20)	점심	
(11:20~12:00)	<단편 소설 읽기> "뽕"	학습계획 P.3~9
3교시 (12:00~12:40)	<글의 이해> "뽕"	학습계획 P.10

숙제 : 1. 단편 소설 "뽕" 다시 한번 읽고, 학습계획 P. 11의 짧은 글을 써 보세요.

숙제 2: 단어리스트 2 (학습계획 P.12)의 뜻과 쓰임을 공부해 오세요.(다음주 퀴즈)

알림: 1. 다음 주에 사물놀이 수업(12시~12시 40분)이 있습니다.

2. 고급과정 수준별 글쓰기 수업은 격주(2주에 한번, 10시 15분~11시) 로 진행됩니다.

금강반 단어 퀴즈 1

이름: _____

- 다음 각 단어의 뜻을 영어로 적으세요.

1. 분노: _____
2. 모욕: _____
3. 방관자: _____
4. 견본품: _____
5. 염증: _____
6. 인어: _____
7. 유통기한: _____
8. 자존심: _____
9. 동지: _____
10. 철부지: _____

- <보기>에서 알맞은 명사(noun)를 골라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유난 인상 촌구석 시선 고백 비참

1. 식사하던 아이들의 _____ 은 모두 그곳으로 향하였다.
2. 2학년 후배가 _____ 을 떨며 얼룩진 치마를 휘두르고 있었다.
3. 여자애는 손을 뿌리치곤 _____ 을 쓰며 나가버렸다.
4. 편안한 아파트에서 말 그대로 _____ 으로 이사를 왔다.
5. 이제서야 _____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 <보기>에서 문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사(adverb)를 골라 빈칸에 적으세요.

<보기> 팽개치듯 묵묵히 분주히 능숙하게

1. 엄마는 아무말 없이 _____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을 치웠다.
2. 엄마는 식당에서 _____ 일하다가도 내가 온 것을 항상 확인하곤 했다.
3. 나는 책가방을 _____ 놓고는 투덜댔다.
4. 다친 손으로도 엄마는 _____ 내 등을 밀어주셨다.

<맞춤법 연습>

-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안에 O, 틀리면 X를 하고 맞게 고치세요.

1.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 아니예요. ()
2.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
3.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쿠바에 갈 거예요. ()
4. 내년 여름방학에 가 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
5. 제가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습니다. ()
6. 중학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
7. 음악을 들으면 방해되는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
8. 서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이라고 했습니다. ()
9. 헤린이가 YOUTUBER가 되고 싶은 이유는 비디오 찍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
10. 재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모예요? ()
11. 유진이는 엄마가 끓여주시는 부대찌개를 제일 좋아한데요. ()
12. 재민이에게는 형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
13. 호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었어요. ()

- 아래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고치세요.

1. 나는 돈이 만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2.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벌레입니다.

3. 나는 이번 겨울에 따뜻한 남쪽나라에 가고 싶다.

4. 내가 푸에르토리코에 가고 싶은 이유는 바다가 이쁘기 때문이에요.

5. 그 친구는 추운 날씨에 입을 옷이 피로하다.

이오덕(1925년 ~2003년): 교육자, 아동문학가, 우리말 연구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글짓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우리말 바로쓰기>등의 책을 남겼습니다.

“엄마, 정말 이제 난 학교 그만둬요!”

“애가 또 이러느냐? 제발 어미 속 그만 썩여라. 3년 동안 다닌 학교를 그만 두면 어찌 되느냐? 순이 봐라. 글 한 자도 모르고 순인 계집애라서 그래도 괜찮지. 사내아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면 어쩐다더냐?”

순이는 뒷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작년에 1학년에 들었었는데 하도 마을의 아이들이 곱보짝지라고 놀려서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순이 얼굴은 멀리서 보면 모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 얹었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요새도 아침밥만 먹으면 책보통이 대신에 바구니를 들고 혼자 들로 나갑니다. 냉이를 캐는 것입니다.

“나도 이젠 4학년 됐잖아요? 언제까지나 남의 책보통이 메고 다니는 것은 부끄러워 못하겠어요.”

“글쎄, 그건 늘 하는 소리지. 제발 좀 참아라. 어이구, 없는 것이 원수지. 그놈의 아이들이 왜 그토록 못살게 구느냐?”

어머니는 밥숟갈을 들 생각도 않으시고 한숨을 쉬시더니 또 말을 이었습니다.

“애, 너희 아버지도 어찌면 올해까지만 남의 일을 하면 그만두실 게다. 올해까지만 참아라.



용이는,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올해만 하면 그만두신다는 말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정말 올해만 하고 그만뒤요?”

“네 장래를 생각해서도 그만두시도록 해야겠다. 남의 산전(山田)을 소작해서 죽을 마시더라도”

용이는 밥을 먹고 책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매고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참으면 된다!

“옹아, 빨리 나와!”

바깥에는 벌써 아이 하나가 기다록 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났을 때는 여러 아이가 되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우리, 고개 위에서 진달래 좀 꺾어 가자.”

“아직 꽃도 안 폼을걸.”

“병에 꽃아 두면 피어나지 뭐.”

“그래, 새 교실이 환하게....”

모진 겨울을 이겨 낸 보리들이 새파랗게 살아난 보리밭 독길을 걸어가면서 아이들은 모두 어깨를 우쭐거리면서 향토 예비군의 노래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산기슭을 돌아 고갯길에 올라섰을 때, 그들은 모두 옹이 발밑에 책보통이를 던졌습니다. 벌써 3년 동안 옹이 어깨에 메어져 재를 넘어가고 넘어오던 책보통이들입니다. 옹이 아버지가 같은 동네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옹이까지 남의 집을 날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마, 넌 이제 4학년이 됐으니 기운도 세어졌지? 하나 더 날라 줘.”

지금까지 같은 반의 아이들만 그렇게 하던 것이 오늘은 한 학년 위의 성윤이까지도 따라와 이렇게 말하면서 커다란 책보통이를 놓고 갑니다. 책보통이는 옹이 제 것까지 모두 일곱 개나 되었습니다.

책보통이가 없이 된 아이들은 모두 소리치면서 산길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올해만 참자!”

옹이는 언제나처럼 길가 바위 밑에 가서 참나무 지겟작대기를 찾아와 책보통이를 모두 꿰어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로 가운데를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산 위에서 짹 비쳐 내렸습니다. 고갯마루까지는 산허리를 세 번이나 돌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은 책보통이가, 모두한 학년씩 올라가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용이는 첫 굽이를 돌아가기도 전에 마른 잔디 위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을 날마다 메고 올라가야 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더구나 5학년의 성윤이까지 말하기 시작했으니, 이러다가는 올해는 지게로 저다 날라야 할지 모릅니다. 이걸 어쩌나?

저 밑에서 따라 올라오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모두 책보통이를 허리에 둘러메고 용이를 앞질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용이를 뒤돌아보면서 저희들끼리 무엇을 수군거렸습니다.

“헤헤에, 4학년이 됐다는 게, 남의 책보통이를 날라 주고.”

“참 못난 아이지?”

모두 이런 말을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못난 아이라고?’

‘내가 못난 아이인가?’

용이는 화가 났습니다. 벌써 고개 위에 다 올라갔는지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산 위에서 들려왔을 때 용이는 눈앞에 있는 책보통이를 콕 콕 짓밟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났습니다. 발꿈치에 돌멩이 하나가 차였습니다. 그 바람에 용이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나 용이는 벌떡 일어나 그 돌멩이를 힘껏 골짜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저 밑에 떨어지자 갑자기 온 산골을 뒤흔드는 소리를 치면서 커다란 뭉텅이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꼬공 꼬공 푸드득!

그것은 온 산골의 가라앉은 공기를 뒤흔들어 놓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정말 살아 날뛰는 듯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야, 참 멋지다!”

날개를 짹 펴고 공지를 쭉 뻗고 아침 햇빛에 눈부신 모습으로 산을 넘어가는 꿩의 모습을 쳐다보는 용이의 온몸에는 무슨 힘같은 것이 마구 솟구쳐 올랐습니다. 용이는 발에 채는 책보통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하늘 위로 던졌습니다.

횡!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던 책보통이가 퍽!소리를 내면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용이는 두 번째 책보통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마지막에 던진 것은 건너편 벼랑의 소나무 가지를 철썩, 치도록 멀리 떨어졌습니다.

“됐다!”

용이는 어쩐지 마음이 시원하여, 하늘을 향해 하하하 웃어 주고 싶었습니다. 떠가는 구름을 타고 막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이었지!”

용이는 제 책보통이만 다시 허리에 둘러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향해 날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고개 위에는 아이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진달래 가지를 한 줍씩 꺾어 들었습니다. 어떤 가지는 벌써 불그레한 봉우리가 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 용이가 빈손으로 오네?”

“정말. 저 새끼가?”

“인마, 책보통인 어쨌냐?”

용이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올라오고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용이를 빙 둘러쌌습니다.

“너, 책보통이 어쨌어?”

“이 새끼 죽고 싶으냐? 빨리 말해 봐!”

용이는 아이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그러나 힘찬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책보통이들을 날리고 나니 마음이 착 가라앉는 것이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책보통이 말이지? 저 밑의 뽕죽바위 아래 던져 놓았어.”

“뭐? 이 새끼가!”

“이 새끼 돌았나?”

“빨리 못 가져오겠나?”

그러나 용이는 여전히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못난 놈이 아니야!”

“어, 이 새끼가?”

“요런 머슴의 새끼가?”

“개새끼! 맛을 좀 보고 싶으냐?”

아이들의 발과 주먹이 용이를 향해 덮쳐 왔을 때 용이는 제빨리 주머니에 든 손을 빼내어 쳐들어 보였습니다. 그 손에는 주머니칼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필을 깎으라고 부러진 낫 동강이에 자루를 해 박아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어, 어. 이 새끼가....”

칼을 보자 아이들은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덤빌 테면 덤벼 봐라!”

아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뒤에서 한 아이가,

“난 내 책보통이 가지러 가야겠어.”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나도 간다.”

“나도....”

하고 달려갔습니다.

“이놈 새끼, 두고봐라.”

맨 마지막에 내려가면서 성운이가 말했습니다.

“오냐 인마, 얼마든지 봐 줄게!”

용이의 목소리는 하능 크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두 와아 하고 아까 온 길을 내려가는 뒷모양을 보고 용이는 또 한 번 가슴을 확 펴고 하하하 웃어 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이젠 못난 놈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엔 순이를 데리고 오자. 순이를 놀리는 놈은 어떤 놈이고 용어 안 한다!”

용이는 돌아서서 햇빛이 눈부신 내리막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숨에 학교까지 막 뛰어갈 듯 합니다. 하늘에는 하얀 구름 한 송이가 떠 있습니다. 용이는 훌쩍 한 번 뛰더니 마구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내리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마리의 꿩이 소리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1971년 작품)

<글의 이해: 20점> 소설 “땡” (by 이오덕)

- “땡”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다음 중 소설 “땡”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

- (1) 순이는 용이의 여동생이다.
- (2) 어머니께서는 용이에게 올해 학교를 그만 두라고 하신다.
- (3) 용이의 아버지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계신다.
- (4) 순이는 용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1. 순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글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문장을 찾아 적으세요)

2. 용이는 왜 아이들의 책가방을 날라 주어야 했나요? (글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문장을 찾아 적으세요)

3. 용이가 아이들의 가방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순간을 묘사한 문장을 찾아 적으세요.

4. 용이가 자신감을 갖고 나서 가장 먼저 순이를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짧은 글 쓰기:30점>

-
-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단어 리스트 2: 소설 “뽕” >

1. 원수: 적 enemy
2. 머슴살이: 남의 집에서 머슴(servant) 으로 일하는 것 *머슴을 살다.
3. 장래: 다가올 앞날, 미래 future prospect *장래희망
4. 산전: 산에 있는 밭 a field in the mountains
5. 소작: 남의 땅을 돈을 내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
6. 모질다: 사납고 독하다 harsh, heartless
7. 우쭐거리다: 잘난 척하며 뽐내다 act conceited
8. 산기슭: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래 부분 the foot of a mountain
9. 고갯길 : 고개를 넘어가는 길 an uphill path *고개 = 재 hill
10. 꿰다: skewer
11. 앞지르다: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다 pass
12. 수군거리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말하다 talk in whispers
13. 충동: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강한 마음 impulse

- 14. 고꾸라지다: 앞으로 넘어지다 fall to the ground
- 15. 산골: a mountainous area *산골소년: 산골에 사는 소년
- 16. 생명: 목숨 life
- 17. 꼬지: 새의 꼬리 tail
- 18. 꿩: pheasant
- 19. 벼랑: 낭떠러지 cliff
- 20. 봉오리: 꽃봉오리, 아직 피기 전의 꽃 a bud